문화기행

전통의 멋이 흐르는 하회마을

강 욱
자유기고가

안동(安東)은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간직한 유교문화의 본고장이다.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은 73세 생일을 기념하여 안동을 방문해 한국 전통 문화의 향수를 경험하고 감탄을 했다. 하회마을을 시작으로 양반문화의 본류인 고택(古宅)과 서원 등을 돌아보고 고추장과 김치 담그는 모습, 소를 이용한 밭가는 정경, 탈춤 등을 보면서 한국 전통문화에 매료되었다. 여왕의 방문은 세계적인 문화도시 안동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켜 주었다.

'한국 속의 작은 한국'으로 불리는 안동이 현대 한국에서 지니는 의미의 중요성은 이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전통시대의 문화유산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면 안동지역에 전통의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다.

안동지방은 낙동강 상류에서 풍부한 물을 제공받는 데다 태백산과 소백산에서 줄기를 뻗은 큰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따라서 외부의 간섭을 적게 받으면서 조선 초기부터 나름대로 토호세력 중심의 독립된 동족마을을 이루고 양반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었다. 한가로운 정취를 즐기고 편안한 삶을 도모했던 사대부들에게 안동지방은 딱 맞아떨어지는 형국을 가진 곳이었다. 곧 조정의 간섭을 덜 받는 지형 지세와 안정된 계급구조, 그리고 풍부한 농토는 사대부들이 자리잡기에 가장 적합했다.

안동은 조선 중기 이래로 내내 유학의 중심 고장으로 자리잡았다. 퇴계학파의 중심이었고 남인 학맥의 가운데에 서 있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한 지역이 수백년 동안 학문의 중심성을 꾸준히 유지하였던 경우는 안동을 제외하곤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선비·양반문화로 지칭되는 독특한 안동문화를 창조해 냈다. '朝鮮人才 半多嶺南, 嶺南人才 半多安東' 이라는 말과 같이 조선시대 안동이 819명의 과거합격자를 배출해 팔도에서 첫째를 차지 한 것만 보아

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원이 건립되어 뿌리깊은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정신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고장이다.

안동에는 의(義)와 예(禮)를 중시하며 대쪽같이 꼿꼿한 절개로 학문과 풍류를 즐겼던 옛 선비들의 생활과 정신이 그대로 배어 있다. 동방의 주자라 불리울 정도의 대학자 였던 퇴계 이황(李滉)을 비롯하여 서애 유성룡(柳成龍) 등 명현 거유가 배출되어 영남학맥의 연원지가 되었다.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통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마치 고건축물의 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지정문화재 245점, 비지정 문화재급 250여점이 이 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발 닿는 곳마다 문화유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학문을 탐구하고 인격을 연마하던 유학의 본산 도산서원을 먼저 찾아가 보았다. 도산서원 앞에는 푸른 안동호가 아늑하게 펼쳐져 있고 뒤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에워싸고 있어 더한 운치를 불러일으켜 준다.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있는 도산서원은 명종 16년(1561)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선생이 도산서당을 짓고 유생들을 교육하며 학문을 쌓던 곳으로,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유림과 제자들이 선생의 높은 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다.

그 후 선조 8년(1575) 당대의 최고 명필이었던 한석봉의 친필로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현판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서원의 구성은 도산서당, 농운정사, 전교당, 책을 보관하는 광명실, 퇴계선생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 도산십야곡' 판목이 소장된 장판각 등으로 되어 있다.

조선 성리학의 태두 퇴계 이황은 34세에 급제, 예조판서, 우찬성, 대제학을 지내고 사후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그는 70여회나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탐구와 인재양성에 힘써 한국사상의 큰 줄기를 이루었다.

퇴계 종가(宗家)는 도산서원 뒷자락의 작고 부드러운 구릉을 따라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다. 불에 타 없어진 것을 1929년 이황의 13대손이 옛 규모대로 복원한 것이다. 정면 6칸, 측면 5칸의 ㅁ자형 건물로 전면에 솟을대문을 갖추고 있다.

현재의 이황 종택(宗宅)은 8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 오래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황의 손때가 묻은 체취와 역사와도 같은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을 만나려면 도산서원에 가 보는 것이 좋다.

민속문화의 보고(寶庫)로 불리는 하회(河回) 마을은 전통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풍천읍에서 서쪽으로 난 516번 지방도로를 따라 10분쯤 가면 넓은 들판 모퉁이로 낙동강 줄기가 나온다. 이 물줄기를 휘돌아 난 길을 따라가면 '물도리동'이라고도 불리는 하회마을이 나온다.

하회마을은 풍산유씨(豊山柳氏)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동성마을로 조선시대 대학자인 서애 유성룡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한국 양반문화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 마을은 조선 전기 이래의 건축물과 하회 별신굿탈놀이, 선유줄불놀이 등의 민속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하회마을은 마을을 중심으로 화산, 남산, 원지산이 병풍처럼 둘러싸 있고 마을 앞으

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깍아지른 듯한 부용대,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빼어난 경치를 이룬다.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된 이곳은 고색 창연한 겸암 선생의 양진당과 서애 선생의 충효당을 비롯한 고택들과 병산서원, 화천서원 등의 서원, 옥연정사, 겸암정사 등의 정자가 양반문화의 옛 모습을 재현해 준다. 비 포장된 골목을 따라 이어지는 토담집과 초가는 그대로 보존되어 정답고 소담스런 서민들의 옛 정서를 물씬 풍겨 준다.

보물 제414호인 충효당에는 기념관이 있는데,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 당시 정황을 일기식으로 기록한 국보 제 132호 《징비록》이 보관되어 있다. 유성룡의 큰집에 해당하는 양진당은 조선시대 양반 살림집의 전형에 속한다. 행랑채에 우뚝 솟은 솟을대문을 지나면 사랑채 마당이 나온다. 행랑채 서쪽에는 온돌방과 함실부엌이 있고 동쪽에는 마굿간과 온돌방이 있다. 여기를 넘어 안으로 들어서면 ㅁ자형의 안채가 아늑하게 다가온다.

한국 민중들의 삶을 풍자와 해학으로 승화시킨 민속문화가 안동지방에는 살아 숨쉰다. 하회마을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신명나는 놀이문화에 함께 어울린다. 서민들의 삶을 전통미학으로 그려낸 갖가지 민속놀이는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던 투박하고 고집스러운 민중들의 생활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안동의 민속 가운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하회 별신굿놀이와 동채싸움. 차전놀이, 놋다리밟기, 성주풀이 등이 있다. 하회 별신굿놀이는 대학가에서 탈춤붐과 함께 젊은 지식층 사이에 널리 알려진 민속놀이이며, 성주풀이는 성주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성주굿을 담당하는 무당들에 의해 전승되어온 민속이다.

동채싸움과 놋다리밟기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행해졌던 세시풍속의 하나로서 전승주체가 남성 중심과 여성 중심으로 남녀간의 성별 대립을 보이고 있다. 많은 민속놀이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 69호로 지정된 하회 별신굿놀이는 농촌 별신굿놀이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안동이 꼭 유교문화의 본 고장만은 아니다. 안동은 한국정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불교문화의 중심지이다. 안동지역 불교의 특성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불교의 이상사회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한데 있다. 안동시 태후면에 있는 봉정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국보 제16호인 신세동 7층 석탑도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벽돌탑)으로 유명하다.

'청포도'의 시인이자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사 육사(陸史) 이원목의 시비가 도산면 원천리에 있어 안동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온 충절의 고장임을 말해 준다. 유교의 본향(本鄕) 안동에서는 옛 선현들의 삶이 스크린처럼 연상되어 흐른다. 고서(古書)에 묻혀 학문에 취하고 때로는 자연을 음미하며 풍류를 논했던 옛 선비들의 궤적을 찾을 수 있다.